

低油價 시대는 오는가

金 乾 洽
(대한석유협회 홍보실장)

연 초부터 폭락을 거듭해온 국제원유가격은 산유국들간의 油價안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앞으로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최근 세계 주요석유시장에서 現物油價의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일부 유종의 경우 油價의 심리적 마지노線이라는 20달러 이하로 폭락하였다. OPEC(石油輸出國機構)와 非OPEC 산유국간의 시장쟁탈전이 첨예화되면서 시장정세에 민감한 北海産 브렌트油와 美國의 WTI(西部텍사스産 中質油) 등 일부 現物유가에 선도된 하락세가 全油種에 폭넓게 파급, 바야흐로 低油價시대에 돌입하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이같은 油價폭락에 대해 석유전문가들 중에는 이미 第3의 石油危機를 예견하고 있음은 크게 주목된다. 석유위기에 언제나 취약한 체질의 우리로서는 이같은 전문가들의 전망이 하나의 경고와 우려에 지나지 않더라도 깊은 관심과 장기적인 대비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제석유가격이 내린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非産油開途國에 당장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급격하고 한없는 폭락은 공급체계의 마비를 불러 잠시나마 수급에 차질을 줄 수도 있으며, 길게는 新가격 카르텔과 금융위기를 재촉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기고만 있을 일도 아닌 것이다.

최근 국제원유가격의 하락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제석유시장에서는 몇가지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油價의 기준치인 기준원유가 종전의 아라비안라이트에서 北海의 브렌트, 美國의 WTI 등 각 시장의 대표적인 유종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OPEC의 공시가격체제는 퇴색하고 있다. 이와같이 국제원유가격의 기준이 다변화·다양화됨으로써 석유시장의 지배력도 분산되고 있다.

둘째는 現物시장과 先物시장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現物시장에서 거래되는 量은 전체석유 교역량의 50~6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 2차 석유위기시의 현물거래량 3~5%에 비하면 그 신장세를 알 수 있다.

지난 83년 3월 NYMEX(뉴욕상품거래소)에서 시작된 原油선물거래는 그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여 85년에는 2천만B/D에 이르고 있다. 지난 해 우리나라의 전체원유도입량중 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물시장에서 사온 물량은 30.9%이다.

이러한 現物·先物시장의 발달은 세계 석유시장에서의 油價결정력에 있어서도 60년대의 메이저, 70년대의 OPEC에서 이제는 現物·先物 시장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시장형태의 발달은 세계석유시장에서의 油價결정이 공급자의 독점력보다 시장메커니즘에 의존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세제는 난방유와 휘발유와 같은 석유제품의 가격이 원유가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사우디 아라비아가 일부 석유거래에서 채택하고 있는 네트백方式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네트백가격방식은 석유제품 가격에서 정제비와 운임을 공제한 가격으로 일종의 석유제품가격 연동제이다.

국제원유가격 하락은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 틀림없다. 즉 국제수지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성장·고용·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국제수지개선과 고용증대가 절실한 이 때에 국제원유가격의 하락은 가뭄에 단비라 할 수 있다. 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家計부담의 경감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韓國銀行은 국제원유가격이 현재의 배럴당 28달러(아라비안라이트公示가격 기준)에서 20달러로 떨어질 경우 우리나라는 수출이 연간 2억 8천

만달러 정도 늘고, 수입은 9억 9천만달러가 줄어 모두 12억 7천만달러의 경상수지개선 효과와 1.2% 포인트의 GNP 추가상승, 3.9% 포인트의 도매물가 하락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석유사업기금이 현행 배럴당 50센트에서 1달러 25센트로 오르고, 原油수입관세가 1%에서 3%로 인상될 것을 전제로 추산한 것이다.

韓國開發研究院은 국제원유가격이 배럴당 5달러 인하될 경우, 우리나라의 연간 원유 도입부담은

약 9억달러가 경감되고, 非中東지역수출(실질)은 1.6% 포인트 증대되며, 실질GNP가 0.3%포인트 추가상승하고, 도매물가는 약 3% 인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제원유가격의 하락은 우리와 같은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일반 국민들은 요사이 산유국들이 기름값을 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째서 아직 기름값을 내리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또 기름값이 10달러까지 내려간다고 하니 일반국민들은 에너지절약 운동은 이제 그만두어도 되지 않느냐는 식의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우리는 요즘 원유가격폭락이 국내油價에

신속히 반영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성급한 기대와 에너지절약의 헤이위험성 등에 관해 좀더 깊은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코자 한다.

확실히 요즘 국제원유가격의 하락을 보는 일반국민들의 눈은 자칫 몇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첫째, 외신의 보도초점은 유럽, 美國 등 우리의 시장과 먼 거리에서, 그것도 現物 아닌 몇달의 先物價중 최저가격이라는 사실, 우리의 도입원유 절반이 공시가격의 적용을 받는 장기계약분이라는 점이다.

현재 우리가 원유를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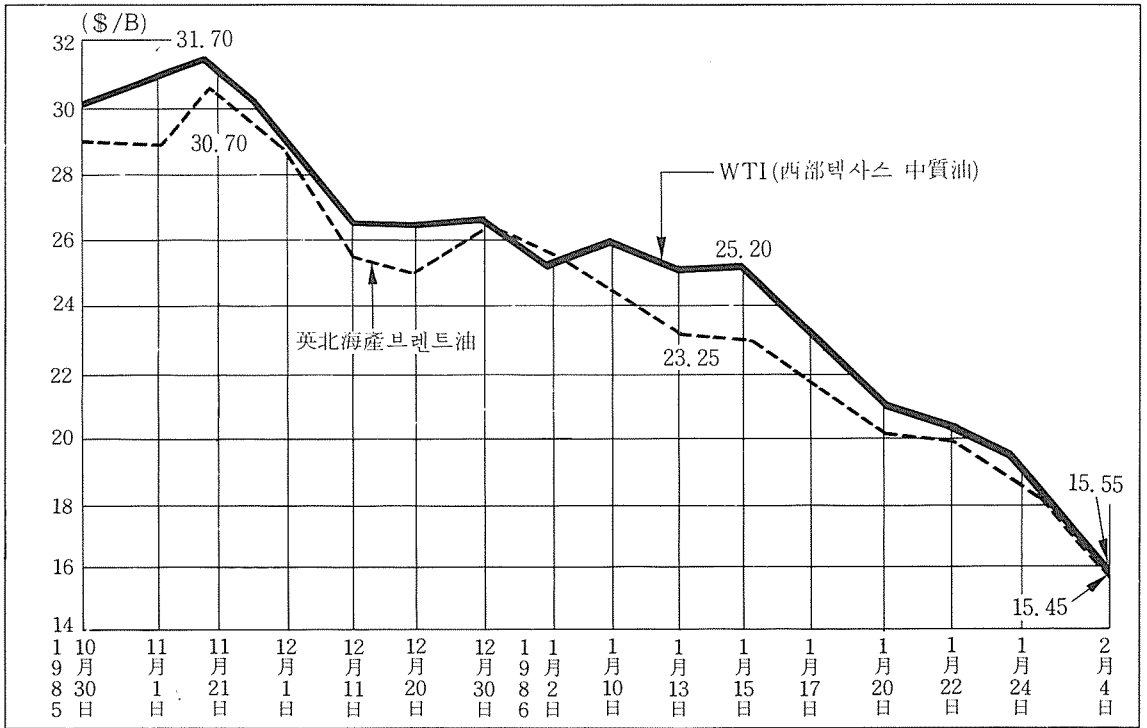
오는 나라는 모두 11개국으로 이중 56% 가량이 中東지역에서 들어오고 있다. 이 지역에서 들어오는 원유는 대부분 장기계약분으로 그 가격은 아직까지 요지부동이다. 그동안 精油社들의 低價원유도입노력으로 상대적으로 값이 싼 現物原油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나, 이것도 대부분 中東지역에서 들어오고 있다. 요즘 폭락세를 보이고 있는 北海産 브렌트油는 전혀 도입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北海産 원유가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油價 내리기 전쟁



어디 「알라」神이 이기나……
「몰라」神이 이기나……

최근의 국제現物油價 추이



IEA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에만 판매하고 있어 우리로서는 구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일부 現物油價의 하락세가 原油가격 전체의 동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부는 국내油價를 앞당겨 12.93% 인하 했다. 이는 기왕 내릴 것이라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측면과 국제원유가격이 폭락하는 가운데 국내油價인하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분위기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油價인하는 도입原油價가 이미 내려서가 아니라, 앞으로 도입단가가 배럴당 22달러 선까지 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앞당겨 취한 조치이다. 즉 일정한 수확량을 예상하고 미리 당겨 먹는 형식이다. 국제원유가격 하락추세로 볼 때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이론적으로는 만약 도입油價가 우리의 예상대로 내려가지 않거나 반등하게 되면, 더 어려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최근의 국제油價폭락세는 단순한 가격변동의 차

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제 3차 石油危機라는 새로운 의미부여의 양상마저 띠고 있다. 지난 70년대의 두차례 석유위기야말로 73년의 2.10달러선의 油價를 10년 사이에 34달러로 무려 15배 이상 높임으로써 세계경제에 「스테그플레이션」이라는 경제학의 新用語를 만들어 냈다.

우리는 반드시 가격의 상승만이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격의 폭락 역시 危害를 불러온다는 교훈을 일찌기 1929년의 세계공황에서 경험했다. 이번 국제원유가격의 하락이 그런 幅의 파국을 가져오리라고 보는 것은 과장일지 모르나, 만일 앞으로 일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대로 15달러 이하로 폭락할 경우 밀어닥칠 영향은 활력소는 커녕 세계경제에 대한 최악의 파괴요인으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비관론은 일면의 타당성이 있다.

왜냐하면 산유국 가운데는 英國, 노르웨이와 같이 海底착유로 배럴당 생산원가가 8~15달러에 이르는 나라와 9백 70억달러 외채의 멕시코같은 허약체질의 나라가 있다는 점이 油價 過下墜에서 오는 직접적인 위험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들이다. ◆